“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3년 내 완성”

진각종 2월 20일 신년기자간담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손규상: 1902~1963) 탄생지인 울릉도에 제 3차 성역화 조성사업인 금강원 성역화 불사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완성하겠다. 핵심 사업으로는 △회당기념관 △회당생가 복원 △명상수련원 조성 등으로 울릉도 사동 일원 1만3600여 평(45,237㎡)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으로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인 회당명상체험관 건립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지난 1월 통리원장 직속 기구인 ‘성지조성위원회(위원장 경일 정사)’와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회(사업회장 도진 통리원장)를 발족하며 3월부터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은 1993년 회당대종사 열반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이미 1·2차 성역화 불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현 금강원에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위덕을 기리기 위해 종조전 및 종조비와 탑이 건립돼 있다. 또한 올해부터 3년 간 추진하는 제 3차 성역화 불사는 올해 추진 1단계로 금강원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설물 설계·토목 및 도로공사 등을 진행한다. 2단계로 추진되는 내년에는 전통한옥 구조의 회당기념관을 신축해 의례와 수행공간을 마련하고, 수행과 힐링 체험이 가능한 ‘명상수련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추진 3단계인 2025년에는 울릉도 전통 너와집 구조로 ‘회당대종사 생가’를 복원하고, 방문객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인 ‘다도원’ 및 식물치료 등 생태체험 공간인 울릉도 자생식물원 등의 조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회당기념관·생가복원·명상수련원
2025년까지 3차 성역화 사업 완료

회당대종사 열반60주년 기념사업
‘참회’ ‘화합’ ‘혁신’ 등 주제로 결정
기념 사업회 발족, 3월 중순 추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이와 관련해 도진 정사는 “지금까지 종단·국비·도비·군비 등을 합해 총 70억 원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사업부지는 종단소유 45,237㎡(13,684평)으로 개별공시가는 약 63.5억원이며, 축구장 면적의 약 6.5배가 되는 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진 정사는 “이 불사가 완공되면 종단의 대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매년 개최되는 회당문화제와 연계해 울릉도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대 기조인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사업은 ‘다시 종조정신’으로 돌아가 종단의 활력과 교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제는 종단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교화 및 포교의 혁신적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참회’ ‘화합’ ‘혁신’ 등을 잡았다. 도진 정사는 “이중 특히 참회는 종조님의 창종정신이 깃든 사상이며, 혁신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친 종조님의 개혁 정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각종은 1월초 도진 정사를 회장으로 하는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했으며, 3월 중순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진각의범과 진각교전 재편집 △실행론 증보판 준비 △회당 교성곡 공연(11월 예정) △종단 홍보 동영상 및 책자 제작 △전통 장엄등 도록 발간 △밀교신문 창간 50주년 기념행사(4월중) △신교도 신행체험담 발표회 △진각문학회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호〉 발간 △추모공원묘지 조성 등 16개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교구는 서울 교구를 포함해 8개 각 교구별로 △혜정종사님 화엄경 교리법회 △4성지 순례(4월~10월) △교구별 파크골프대회 △원로스승, 원로 신교도 회고 법회 및 신행체험담 발표회 △초전법륜지 포항 이송정 문두루법 시연법회 등 총 58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도진 정사는 “회당대종사의 창종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통해 진각 100년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64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

조계종 교육원, 2월 18일 직지사 만덕전서

조계종 예비 승려인 행자들이 출가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사미·사미니 수계교육이 원만회향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지우)은 2월 18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64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간 진행된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28명, 여행자 12명 등 총 40명의 행자들이 입교했고, 중도 퇴방자 1명을 제외한 총 39명이 수계교육을 거쳐 5급 승가고시에 전원 합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출가자의 삶은 지혜와 자비행이라는 양 수레바퀴를 굴리는 삶”임을 분명히 하며 “조견오온(照見五蘊)의 지혜를 갖추고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수행과 전법의 열정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생활과 수계교육의 정진의 시간이 이제 막 지나고 본격적인 문사수(聞思修)와 보살행(菩薩行)의 길이 시작됐다”면서 “스스로 선택한 불교와 종단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수행자의 위의를 늘 살피며 인천의 사표로서 최선의 삶을 지향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치사에서 “여러분이 수지하신 부처님의 계율이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튼튼한 갑옷이 될 것”이라며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의 일원이다. 불법의 바다에서 새롭게 태어나 열반의 세계로 함께 가는 좋은 도반”이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향식에서는 수계교육 기간 중 성실하고 여법하게 교육에 임해 다른 행자들의 모범이 된 모범행자 표창에 도연 사미와 법기 사미니, 5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표창에 경오 사미와 지오 사미니를 시상했다.

신성민 기자

“대행 선사 가르침, 꿈나무들 밑거름 되길”

한마음선원, 2월 19일 제18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전달

교육대생 등 38명에 지급
담당 스님 추천받아 선정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19일 제18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선사가 남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회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신도로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담당 스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 중 불심이 돈독한 우수 학생에게도 수여된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 12명, 한마음장학생 18명, 경인교육대생 8명 등 총 38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전달식에서 장학회 측은 장학생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큰 스님의 뜻을 담은 마음의 선물이자 양식”이라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큰 스님과 여러 후원자들의 뜻을 마음 깊이 받아 지녀 학문뿐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학회 측은 “여러 후원자들이 보내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 바란다”고 부탁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세상 변화시킬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동국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초 대면 입학식
2월 21일 장충체육관서 개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전면 대면 입학식이 동국대에서 열렸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2월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전면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는 2023학년도 신입생 3137명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교수 및 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이 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며 “신의와 의리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입생 선서 중인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들

이어 3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 시대의 핵심가치는 소통과 융합, 개방과 협력이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플랫폼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울의 중심에서 117년의 유구한 역사를 쌓아 올리며 역사의 수많은 주역들을 배출한 동국대학교에서 각자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꿈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번 새로운 행사로 이목을 끌었던 동국대는 이날 입학식에서 ‘유퀴즈 온 더 동국’ 축하공연을 이어갔다. 얼마 전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던 정각원장 진명 스님이 동국대의 건학이념인 불교 정신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과 퀴즈로 신입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입학식 사회를 맡은 이정민 KBS 아나운서(광고홍보 99)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동국대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한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동기들 또 선후배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후배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입학식 후 각 단과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수강신청 방법부터 학사제도, 장학, 국제교류 등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신성민 기자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익산삼사순례 - 미륵사지·심곡사·숭림사

삼사순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하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

익산시가 불자님들의 삼사순례를 앞두고 초청장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고도 백제의 왕도로서 불교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세계유산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은 선인들의 신앙과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고, 힐링과 기도를 만날 수 있고, 둘러보면서 행복과 환희를 품을 수 있는 불자들의 순례지입니다. 2023년은 때마침 익산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삼사순례와 방생 행사를 반겨 맞이하고자 합니다. 미리 방문을 알려주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안 내 처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1577-0072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백제역사유적 탐방
미륵사지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절터에 지금은 동탑과 서탑도 복원돼 관광객들과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백제 무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심곡사

깊은 골짜기라는 이름의 천년고찰, 7층석탑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떡목을 지닌 정정렬 명창의 득음을 기념하기 위한 떡목공연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왕궁리유적

아름다운 오층석탑과 왕궁터가 남아서 백제부활을 꿈꾸던 무왕의 웅지를 보여줍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줍니다.



힐링생태여행
숭림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보광전과 그안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딱 인생샷 배경으로 그만입니다.



데크, 연꽃, 하늘, 구름
용안생태습지공원

금강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휴식과 방생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